

## 大學生의 孝行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Behavior of Hyo(filial-piety)

송원전문대학 유아교육과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고 경 미

교 수 : 서 병 숙

Dept. of Childhood Education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SongWon Junior College

of Home Economics, Hanyang University

Instructor : Ko Kyung Mee

Prof. : Seo Byong Sook

### 目 次

I. 序 論	2. 調査對象
II. 理論的 背景	3. 資料蒐集 및 分析方法
1. 孝의 本質	IV. 結果 및 解釋
2. 孝道의 方法	1. 孝行에 관한 内容
3. 現代的인 孝	2. 社會人口學的 變因과 孝行과의 關係
4. 孝道와 關聯된 變因	3. 孝行에 대한 大學生의 實踐度
5. 研究問題 및 假說의 設定	V. 要約 및 結論
III. 研究方法	參考文獻
1. 調査道具의 作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several variable which were assumed to have relationship with the college students' behavior of Hyo, to see their possible correlation wit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o provide some useful data for their possible correlation wit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o provide some useful data for their sound value system.

The data for this study was obtained from the survey of the 477 students who reside in the city of Seoul by using questionnaire methods.

The frequency of variables was statistically analyzed to see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samples and factor analysis was made for classification of the college students' behavior of Hyo. In order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 variables, t-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 1) As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about behavior of Hyo, six factors (which Eigen value

was above 1.0) out of 64 questions were extracted : 'respect' 'familiarity' 'family consciousness' 'serve' 'self-preservation. establishment of them-selves in life' and 'self-reliance' were selected.

2) In general, it can be said that the college students' behavior of Hyo varies by demographic variables.

3) By surveying the level of actualizing Hyo of the college students' all of factors ranged from "the middle" to "the high level". The result confirmed that students fulfilled the behavior of Hyo to their parents in all items.

## I. 序論

韓國社會는 李朝末期부터 일어나기始作한 社會變動 즉, 開化思想을 선두로 하여 產業化, 都市化,近代化 그리고 核家族화의 영향으로 閉鎖的 傳統社會로부터 近代的 開放社會로 옮겨게 되었다. 특히, 短時日内에 流入된 西歐文化는 개인의 價值觀을 混亂시켰고, 世代間 價值觀의 差異를 招來하여 新教育을 받은 輕은 세대와 新教育을 받지 않은 重은 世代間의 對話를 단절되게 하였으며(李光奎 1982), 諸般 社會制度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의 倫理觀이 变하게 되어 道德不在와 人間喪失, 老人問題 및 青少年問題등 기타 많은 問題들을 야기시켰다.

儒教思想이 철저히 지배되었던 傳統家族에서는 자식이 어버이에게 行하는 道德인 孝가 父母와 子女關係의 基本原理였으며, 이러한 孝의 倫理는 傳統社會에 있어 어떠한 價值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여 生活化, 普遍化 되어왔다. 오늘날에도 儒教思想과 敬老思想 및 孝思想이 우리 社會와 家庭의 規範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認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社會狀況에 따라 從來의 思考나 行動의 基調를 이루고 있던 傳統的 價值觀이 瓦解되어 가고 있으며 적어도 社會的으로 anomie 現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傳統社會에서의 孝는 父母子女間에 自然的으로

우리나오는 愛情의 表現이라기 보다는 父의 絶對的 權威下에 그 명령을 받는 父母에 대한 子息의 일방적 服從, 尊敬 및 義務였다. 그러나 現代社會의 孝는 일방적 義務關係의 概念으로 부터 벗어나고 있음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子息들은 孝에 대해 懷疑的 反應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들어나고 있다(金雨鐘 1979). 이것은 傳統的인 孝觀에 비교해 볼 때 주목할 만한 價值觀의變化인 것이다.

이렇듯 傳統的인 孝의 概念에 变化가 일어남으로써 전통적 孝를 現時代의 生活原理로 적용할 수 없으며 동일한 價值부여를 할 수 없다고 할 때 많은 새로운 問題들이 야기되는 것이다. 즉, 우리의 文化와 規範과 思惟가 담긴 孝倫理를 現代的으로 되살려 우리의 生活倫理로 定立시켜야 할 時代的 狀況에 당도한 것이다.

現在까지 孝에 관한 研究는 많이 이루어 졌으나 대부분이 家族과 孝의 構造的 측면에 대한 記述的 水準에 머물렀으며 實證的 研究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실증적 연구는 傳統的인 孝行概念에 대한 것이었고 이에 關聯된 變因을 고려한 實態研究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에 本 研究에서는 첫째, 대학생의 孝行을 몇 가지 内容으로 分類하며, 둘째, 대학생의 孝行은 社會人口學的 變因에 따라 어떠한 差異가 있는지를 보며, 세째, 대학생의 孝行은 分류된 内容에 따라 實踐度에 어떠한 差異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 II. 理論的 背景

### 1. 孝의 本質

孝는 그 字源을 따지고 들어가면 會意文字임을 알 수 있다. 즉 孝는 老와 子의 결합으로 이루어 졌으니 이는 年下者(少者: 子女)가 年上者(老者: 父母)를 받들어 모신다는 데서 유래하였으며, 그와 같은 상호간의 연원은 어버이와 자녀간(親子之間)에 형성되는 原初의 關係로 부터 出發하여 그 관계를 規律하는 秩序를 가리켜 孝라고 하는 것이다(金裕赫 1977). 그러나 이런 해석은 자칫하면 年下者가 子息들에게 孝를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孝는 老人の 품에 인간 子息으로 해석하여 年上者가 年下者를 품에 안고 사랑하며, 年下者는 年上者를 받들어 모신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合理的이다(張德順 1977). 孔子는 孟武伯에게 孝에 대해서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을 걱정할 따름이다”<sup>1)</sup>라고 하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父慈)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孝란 父母님의 한 없는 내리사랑에 대한 子女들의 報恩(父慈子孝)의 형태를 그 本質로 하고 있다.

우리는 마음으로 부터 精誠을 간직하였을 때 이를 孝心이라하고, 그 마음속/의 精誠을 行動으로 옮겼을 때 이를 孝行이라하며, 孝心과 孝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스럽게 自己品性을 나타낼 때 이를 孝德이라 하는가 하면 이같은 諸要素를 調和있게 生活化하여 人間의 本質에 自己誠實을 다할 때 이를 가리켜 孝道라고 한다(金裕赫 1977). 孝道 즉, 부모 섬기는 일은 德의 根本이고<sup>2)</sup>, 仁의 根本이며<sup>3)</sup> 동시에 仁의 實이기 때문에 孝道는 百行의 根源이며,

天地의 모든 人間生活의 指導原理이며 근본이 되는 倫理關係이다. 이렇듯 孝는 생활의 本質을 학습하는 教育의 源泉인 까닭에 實行에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孝가 倫理의 根據요 規範이라 한다면, 仁은 가장 具體的인 인간의 인간됨의 現實이다. 그러므로 仁의 實現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이것의 實현을 위한 規範이 필요로 하는데 이 규범 즉, 孝는 仁의 實현의 존재근거(ratio essendi)가 되고 仁은 孝의 인식근거(ratio cognoscendi)라 말할 수 있다(尹聖範 1982).

仁義禮智를 人性至綱이라 하고 孝悌忠信을 人之四德이라고 理解할 때 仁은 人性의 기본이며, 孝는 四德의 기본이라는 점에는 仁과 孝의 不可分性을 파악하게 된다. 孔子는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sup>4)</sup>라고 하였으며,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고 남을 공경하는 것을 悖禮라고 하였다”<sup>5)</sup>. 이것은 仁을 사람이 사람됨이라 한다면 仁은 겸손하게 부모를 恭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孝는 觀念的 思考倫理가 아니고 行動으로까지 옮겨야 하는 實踐倫理이며 불변하는 具體的인 人間關係이다.

孔子는 孝에 대해 “우리의 신체와 터럭과 피부는 다 부모로 부터 물려 받은 것으로,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孝의 시작이오 인격을 완성하고 (立身) 道를 행하여(行道) 이름을 후세에 남김으로 부모를 나타내게 된다면 이것은 孝의 마침”<sup>6)</sup>이라고 하였다. 또한 子夏가 孝에 관해서 여쭈어 보자 孔子는 “부드러운 안색으로 부모를 섬기기가 어렵다. 일이 생기면 자제들이 그 수고를 맡아 보고, 술과 음식이 생기면 부형이 먹고 하는 것을 孝라고 여

註 1) 孟武伯 問孝, 子曰: 父母唯其疾之憂, 論語.

2) 孝德之本, 孝經.

3) 其為仁之本與, 論語.

4) 愛親者는 不敢惡於人하고 敬親者는 不敢慢於人하나니, 孝敬.

5) 不愛其親이오 而愛他人者를 謂之悖德이요 而敬他人者를 謂之悖禮, 孝敬.

6)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라 不敢毀傷이 孝之始也요 立身行道하야 揚名於後라야 以顯父母 孝之終也니, 孝經

기는 가?”<sup>7)</sup>라고 하였으며, 子游의 孝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날 孝라고 하면 부모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와 말까지도 다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느냐”<sup>8)</sup>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孝는 어떤 固定된 意味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父母와 子息의 能力이나 形便에 따라 때로는 保身을 때로는 恭敬을, 때로는 奉養등을 강조하여 그 意味의 해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孝는 父母와 子女사이에 주고 받는 사랑의 정의로서 “父慈子孝”라고 文字로 表現되며, 부모님의 한없는 내리사랑에 대한 報恩의 형태로 그것이 가족과 형제에게 미치면 和睦과 孝悌가 되고, 이웃과 사회에 미치면 信이 되며, 좀 더 나아가서 나라에 미치면 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부터 孝는 百行之源이라 하여 仁을 근본으로 하는 實踐德目으로 단순히 자기 부모뿐 아니라 家庭과 이웃 그리고 地域社會와 國家에 이르기까지根本이 되는 德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民族의 個人倫理, 家庭倫理, 社會倫理 더 나아가 國家倫理의 근원적인 規範인 것이다.

## 2. 孝道의 方法

父母에 대한 子息의 孝道는 크게 生前과 死後의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崔在錫 1982), 세 부적으로 恭敬, 順從, 奉養, 喪祭禮, 侍奉, 養志, 諫言, 保身, 立身, 安樂하는 孝道로 나눌 수 있다(朴鐘潤 1979, 金美惠 1978, 崔在錫 1985, 金承國 1977, 金升遠 1983, 金益洙 1979). 孝行의 類型을 분류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歷史的으로 나타났던 孝行의 事例는 매우 다양한데 비해 이것을 分類하는 일정한 規定은 없기 때문이다. 孝行이란 지극한 孝心의 자연스러운 발로인 이상 그 類型이란

다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몇 종류로 묶어 검토해 볼 수 밖에 없다.

本研究에서는 對象을 大學生으로 한정하였으므로 先行研究에서 分類된 内容中 다음의 일곱가지 孝道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恭敬의 孝道

父母를 尊敬하는 일은 부모를 섬기는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道德的인 義務이다. 孝經에서 “孝道는 아비를 尊敬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다.”<sup>9)</sup>라고 하였으며, “孝子, 어버이 섬기는 것은 어버이 살아 계시면 극진히 그 어버이를 尊敬함에 있다”<sup>10)</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人間의 모든 行動중에서 부모에게 孝道로서 恭敬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부모에 대한 恭敬의 마음은 子息이 단지 마음속에서만 고이 간직해서는 아니되고 子息의 態度, 動作등의 外形에까지 表現되어야만 한다.

### 2) 順從의 孝道

孝란 부모를 잘 대접하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그것보다도 父母의 뜻을 잘 알아 그 뜻대로 順從하는 것이 孝의 本質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뜻이 만일 의리에 해로운 것이 아니면 마땅히 먼저 그 뜻을 이어 받아서 순순히 행하고 조금이라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sup>11)</sup>라고 李珥는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父母生存時엔 모든 것을 父母center으로 行하여야 하고 子息된 者는 每事를 獨立된 意思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父母의 허락을 받은 연후에 實行하여야 한다.

### 3) 侍奉의 孝道

侍奉의 孝道란 父母를 가까이 모시면서 잔 심부

註 7) 子夏問孝. 子曰：色難；有事，弟子服其榮。有酒食，先生饌，曾是以爲 孝乎？. 論語。

8) 子游問孝，子曰：今之孝者，是謂能養，至於尤馬，皆能有養；不敬，何以別乎？，論語。

9) 孝 莫大於嚴父，孝經。

10) 孝子之 事親居致其敬，孝經。

11) 父母之志 若非害於義理 則當先意承順 毫忍不可違，擊蒙要訣。

를 하는 것으로 아침 · 저녁으로 安否를 묻는 등 恭敬하는 態度로 父母를 섬기는 것을 말한다. 侍奉은 子息이 친히 하여야 하는 것이고 결코 他人으로 하여금 行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論語에서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멀리 나가지 않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간다고 한 곳에 가 있어야 한다<sup>12)</sup>고 하였는데 이는 가까이서 부모를 모시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父母를 모시는 데에 있어서는 物質的인 奉養보다는 精神的으로 항시 부모에 대하여 염두에 두고 잘 모시는 態度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 4) 奉養의 孝道

侍奉의 孝道와 구별하기 곤란하나 대체로 物質的인 扶養의 面을 강조한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즉, 奉養의 孝道란 父母가 生活을 영위하여 나가는 데 衣 · 食 · 住의 面에서 窮乏함을 느끼지 않도록 物質的으로 最善을 다해 精誠껏 보살펴 드리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父母의 生前에 미처 孝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後에 後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子息된 者를 奉養의 孝를 계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 5) 保身의 孝道

孝는 自身의 身體를 잘 保全하는 것이 始初가 되는 것이다. 이 保身의 孝는 자신의 安全과 健康을 도모함으로써 父母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것을 강조하는 德目이다.

孔子는 孟武伯이 孝에 관해서 여쭈어 보자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을 관심하느니라”<sup>13)</sup>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自己身體를 잘 保護하여 損傷됨이 없게 하고 壽命을 다하도록 努力하는 것이야말로 子息이 행해야 할 道理요, 責任인 것이다.

#### 6) 諫言의 孝道

子息이 父母에게 孝를 行할 때, 父母가 행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거나 不義 · 不合理한 일이면 忠言으로 諫하여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올바른 方向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諫言의 孝道라고 한다. “父母의 命令이라도 그것이 不義의 것일 경우에는 諫해야 한다”<sup>14)</sup>고 하였다.

따라서 父母의 말에 順從하고, 父母를 恭敬하며 奉養하여 그 뜻을 잘 이어 나가는 것만이 孝道가 아니라 어버이가 不義 · 不合理한 일에 나아가려 할 때 諫하는 것도 중요한 孝道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 7) 立身行道의 孝道

立身이란 우리가 肉體的 · 精神的으로 人格을 낚아서 어엿한 성인 한 사람으로서의 主體性을 가지게 되는 것을 意味하고, 行道란 父母에게서 물려받는 몸을 세워서(立身) 自己에게 맡겨진 바 일을 充實히 해 나가는 것을 意味한다(尹聖範 1982). 그러므로 立身行道의 孝道는 學問과 德을 닦고 社會에 나아가서 바쁜 天道와 眞理를 따라서 行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立身出世하여 自己의 명예를 내고 自己 家門과 先祖의 이름을 빛내며 父母에게 그 榮光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우리는 孝道의 方法이 매우 多樣함을 알 수 있다.

### 3. 現代의인 孝

오늘날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서양문화의 일방적 수용으로 傳統思想이나 傳統倫理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단정, 이를 배격하고 새로운 倫理는 덮어놓고 受容하려는 風潮가 있는데 이는 嚴히 경계하여야만 한다(安商元 1982). 價値 있다고 판단되는

註 12) 子曰：父母在：不違遊，遊必有方，論語。

13) 孟武伯 問孝，子曰；父母唯其疾之憂，論語。

14) 當不義 則子不可以下爭於父，孝經。

倫理는 계승하여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成長期의 젊은이들의思考方式이 傳統價值에 대하여 批判的이고 大部分의 儒教의價値를 陳腐한 것으로 생각하면 서도 孝에 대해서만은 상당히肯定的이라는 점이다.

반면 孝行의 方法에 있어서는 現代인들은 批判的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며 孝道의 달리하고 있다.

앞에서 우리는 孝의 本質을 父慈子孝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絶對的인 孝보다는 相對的인 孝가 더욱人間의이라는 점에서 現代의 平等思想과 相應할 수 있는 것이다(李乙浩 1977).

또한 종속적이며 片務的인 孝의 原理가 變함에 따라 子息들도 自己의 生活과 自己의 人生을 위해서 孝의 意識에 變化를 가져왔다. 傳統社會에서는 결혼한 자식부부가 부모와 同居하여 奉養하는 것을 孝道의 하나로 보아왔는데 現代의 老人(父母)이나 젊은이들은 子息으로서 父母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意見이 지배적인데, 대부분의老人이 부담 없는 마음으로 長男 혹은 다른 子女와 同居하면서 扶養을 받고 있으나(유영숙 1985), 젊은 세대에서는 이러한 責任을 子女들외에 社會가 나누어 맡기를 바라는 率이 높고(한국의 사회지표) 別居扶養에 대한 관심이 높아(徐炳淑 1986) 점진적으로 老父母扶養이 子息의 責任이라는 생각으로부터 變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孝道의 方法에서도 說明한 바 있는 孝가 부모를 위해 奉養하고 恭敬하며, 合理的인 命에 順從하고, 自身의 安全과 健康을 도모하며, 禮로써 和合하고, 課業을 誠實히 수행하며, 善行을 행하고 自身의 根本을 自覺하며, 부모를 위하듯 전체를 위하여 기를 강조하는 德目(金承國 1977)이라면, 이것을 現代의으로 그 意味를 해석하면 自己精誠을 다하여 부모를 받들면서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간에 화목하며 自己職業에 충실하여 社會發展과 國家繁榮에 自己의 最善을 다 함으로써 보람되게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孝를 理解할 때에는 피상적인 生活形式만을 가지고

論議할 것이 아니라 생활저변에 깔려 있는 무너지지 않는 人間本質의 속성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孝의價値체계를 발전적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4. 孝行과 關聯된 變因

孝에 관하여 社會調查를 통한 實證的인 研究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關聯이 있는 變因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本研究에서는 關聯變因으로 性別, 主成長地域, 出生順位, 祖父母와의 同居經驗, 宗教, 家庭教育, 專攻, 父의 教育水準, 收入 그리고 家長의 職業등 10가지 택하였다.

孝道와 性別의 關係研究는 그 一貫性을 보이지 않고 있다. 金雨鐘(1979)은 女學生이一般的으로 男學生보다 孝觀念에肯定的인 反應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朴鐘潤(1979)은 保身의 孝와 養志의 孝에서 男學生이 女學生에 비해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편, 同居意識과 扶養意識이 性別에 따라 統計的으로 有意差가 있다고 한 徐炳淑(1986)의 연구에서는 男子大學生이 女子大學生보다 同居意識과 扶養意識이 더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性別은 孝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主成長地域과 孝行을 관련시킨 연구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에 있어서 아직도 각기 대부분의 사람이 부모에 대한 恭順의 마음을 表示해야 한다고 意識하고 있는데 統計的으로 有意差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崔在錫 1985).

出生順位와 孝行과의 관계를 보면, 徐炳淑(1986)은 同居意識의 경우 長男이 長男以外에 比해 상대적으로 同居意識이 높다고 나타났으며( $P<0.000$ ), 扶養意識의 경우 長男이 長男以外에 比해 상대적으로 同居意識이 높다고 나타났으며( $P<0.000$ ), 扶養意識의 경우에도 長男이 長男以外에 比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으나( $P<0.05$ ) 몸시중意識에서는 長男보다는 長男以外가 더 높은 反應을 보인다고 하였다( $P<0.01$ ).

祖父母와의 同居經驗에서 趙明姬(1974)는 老人과의 經驗이 있는 學生이 老人에 대하여 더 肯定的인 態度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徐炳淑(1986)은 祖父母와의 同居經驗이 없는 경우에 몸시중 扶養을 한다고 하여 조명희의 研究와는 相反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宗教와 孝와의 관계를 보면, 宗教가 孝倫理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李升遠 1983). 그러나 宗教는 그 나라의 歷史와 文化등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孝行에도 영향을 주는 벤인으로 생각된다.

고등학생의 老人에 대한 態度는 어렸을 때 받은 家庭教育에 따라 다르게 反應한다고 하였는데, 家庭教育이 嚴格할 수록 老人에 대한 態度는肯定的이라고 하였다(趙明姬 1974). 이것은 家庭education이 孝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變因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專攻, 父의 教育水準, 收入 그리고 家長의 職業등이 孝行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 變因이라는 實證的인 研究는 別無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이 變因들은 孝行에 어떠한 關聯이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 5. 研究問題 및 假說의 設定

本研究는 지금까지 考察하여본 先行研究를 토대로 하여 本 연구의 研究問題 및 假說을 다음과 같이 세웠으며, 研究의 分析들을 제시하였다.

〈研究問題1〉 대학생의 孝行은 어떤 内容으로 分流

되는가?

假說1: 대학생의 孝行의 몇개의 内容으로 分類될 것이다.

〈研究問題2〉 대학생의 孝行은 社會人口學의 變因에 따라 어떤한 差異가 있는가?

假說2: 대학생의 孝行은 社會人口學의 變因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研究問題3〉 대학생의 孝行은 分類된 内容에 따라 實踐度에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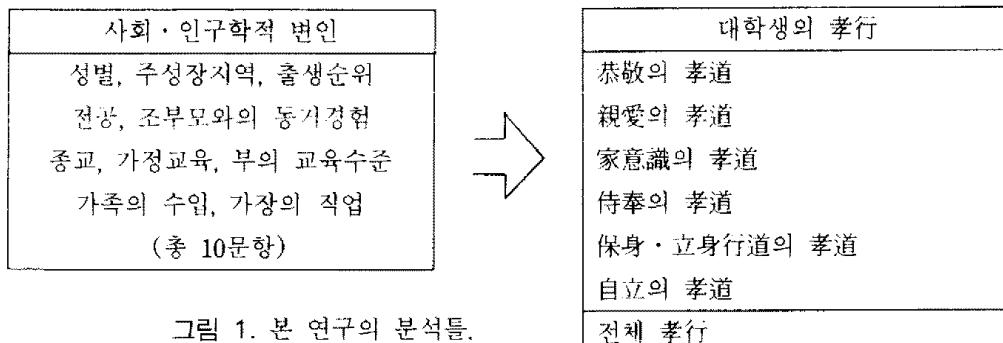
## III. 研究方法

### 1. 調查道具의 作成

本研究에서 사용한 測定道具는 총 74개 문항으로構成된 設問紙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構成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社會人口學의 變因의 特性을 파악하기 위한 10개 문항이며, 둘째 부분은 大學生의 孝行을 파악하기 위한 一般調查項目 64개 문항이다.

孝行에 관한 調查項目은 다음과 같은 過程을 거쳐作成하였다. 大學生을 子女로 둔 父母에게 現在의 子女가 行할 수 있는 孝와 부모들께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孝의 内容을 具體的으로 서술해 달라는 探索調查(pilot study)를 실시한 후에 각각의 内容頻度를 추출하였다. 그리하여 研究者와 大學生 그리고 指導教授와의 討論下에 問項을 作成하였다.

設問에 대한 應答方法은 社會人口學의 特性에 관한 問項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에 대하여 5점 리



커트 스케일(5-points Likert scale)로 等級을 주어 ‘매우 그렇다’의 경우에는 ‘5’,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에는 ‘1’로 응답하게 하였다.

## 2. 調査對象

本研究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大學學生 570명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實施하였다. 標本抽出 방법은 우선 서울시내 3개의 大學校와 1개의 女子大學校를 性과 專攻등이 고르게 分布되도록 選定한 후 배부하였다.

## 3. 資料蒐集 및 分析方法

大學生을 子女로 둔 父母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問項을 作成하고, 72명의 대학생을 對象으로 1987년 7월 14일부터 7月 20일까지 예비조사를 實施하였다.豫備調查 결과 信頼度는 0.938로 높게 나타났으나 内容이 중복된다고 판단된 問項은 本調査用 設問紙에서 삭제시켰으며, 일부 다른 문항은 修正하거나 補完하였다.

本調査는 1987年 9月 9일부터 9月 18일까지 10日間에 걸쳐 實施하였다. 배부된 設問紙 570부 중에서 514부가 回收되어 90.2%의 回收率을 보였으며, 不實記載등 연구에 부적합한 것을 제외한 477부를 실제 分析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一般的性格을 把握하기 위해 各變因에 대한 頻度分析(Frequency Analysis)을 하였고 孝行의 질문내용에 대해 어떤 内容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을 하였다. 要因抽出 方法은 一次的으로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방법 중 배리맥스(Varimax) 接近方法을 적용하였다<sup>2)</sup>. 그 결과, 아이겐값(Eigen Value)가 1.0이상인 要因만을抽出하였는데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二次的으로 요인수를 통제하여 <sup>3)</sup> 6개의 要因을抽出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6개의 要因과 社會人口學的 變因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요인들의 인자점수(Factor Score)<sup>4)</sup>를 산출한 후 다음과 같은 추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社會人口學的 變因에 따른 孝行의 차이점증을

위해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적용하였다.

資料의 統計處理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였다.

## IV. 結果 및 解釋

### 1. 孝行에 관한 内容

大學生의 孝行을 파악하기 위한 총 64개 問項을 要因分析한 결과 6개의 要因이抽出되었는데 모두 433문항이 포함된 것이다.抽出된 要因은 각각의 구성항목의 特性에 따라 다음과 같이 命名하였다.

要因1：공경의 孝道

要因2：親愛의 孝道

要因3：家意識의 孝道

要因4：侍奉의 孝道

要因5：保身·立身行道의 孝道

要因6：自立의 孝道

이상 6가지로抽出된 要因들의 각 問項別 要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표1에 나타나 있으며, 이에 준하여 孝行에 대한 각 要因別 内容의 特性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恭敬의 孝道

대학생이 孝를 行하는데 있어 이 要因에 속하는 内容은, 학생들이 웃어른을 恭敬하여 예의바르게 行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親知나 이웃 어른들께 인사를 恭遜히 하고 號稱을 포함한 言語 사용에 주의하며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言行을 삼가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이들은 부모에게 말대답을 하지 않고 맡은바 일을 誠實히 遂行하여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아 ‘恭敬의 孝道’라고 命名하였다. 이 要因은 전체분산비로 볼 때 54.7%로 과반을 넘는 가장 큰 比率을 차지하였다.

#### 2) 親愛의 孝道

이 要因의 特性은 학생들이 모든 일을 부모와 상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隘路事項이 發生했을 때,

표 1. 각 요인별 문항과 요인합유량

요인명	문항번호	요인합유량			
恭敬의 孝道 (요인 1) *(54.7)	II-13 II-30 II-14 II-19 II-18 II-32 II-28 II-34 II-22	0.64263 0.56341 0.55210 0.50180 0.49834 0.48789 0.45458 0.40049 0.35801	II-16 II-5 II-15 II-25	0.37176 0.35902 0.33433 0.32934	
家意識의 孝道 (요인 3) (9.8)	II-35 II-60 II-52 II-40 II-50 II-51 II-48	0.48296 0.47817 0.46413 0.45740 0.44915 0.43876 0.41025	自立의 孝道 (요인 6) (6.0)	II-7 II-46 II-45	0.52859 0.51694 0.45376
保身·立身行 道의 孝道 (요인 5) (5.1)	II-38 II-1 II-26 II-11 II-21 II-23 II-63	0.49255 0.48906 0.47713 0.43963 0.41018 0.38460 0.31709			
親愛의 孝道 (요인 2) (11.7)	II-9 II-17 II-12 II-64 II-58 II-44 II-24 II-20 II-27	0.68563 0.68483 0.58811 0.53697 0.43989 0.38531 0.37768 0.36608 0.36433			
侍奉의 孝道 (요인 4) (8.7)	II-31 II-39 II-10 II-42	0.66511 0.62459 0.59654 0.50513			

\*( ) 안은 percent of variance임.

혹은 進路·就業問題에 관한 일들을 부모와 상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친구 또는 이성친구를 父母나 家庭에 紹介하고, 부모와 對話를 자주하여 부모의 이야기 相對가 되어 드리거나 相談員이 되어 드려 家庭의 和睦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높아 이러한 내용의 孝를 '親愛의 孝道'라고命名为하였다.

이 要因의 내용은先行研究의 '順從의 孝道'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要因은 전체분산비로 볼 때 11.7%를 차지하고 있다.

### 3) 家意識의 孝道

이 要因의 내용은 대학생들이 부모와 자녀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를 알고 있어 집안 大·小事 問題에 관심이 높으며 때로는 自身보다 집안을 먼저 생각하고 行動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부모의 現實에 대한 苦惱를 알고 있으며, 家訓에 벗어나지 않는 行動을 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父母의 健康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가 연로하시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에는 부모를 扶養한다는 責任意識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의 孝를 '家意識의 孝道'라고命名为하였다.

이 要因의 내용은先行研究의 '奉養의 孝道'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전체분산비로 볼 때 이 要因은 9.3%에 해당하고 있다.

#### 4) 侍奉의 孝道

이 내용은 特性은 가능한한 일찍 귀가하며 외박하지 않고, 외박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自身의 位置와 事由를 알린다는 것이다. 또한 여행시, 외출시 용무와 行方을 분명히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음주·흡연을 과하지 않도록 삼가하고, 그릇된 학생시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큰 子息이 그 자식노릇을 해야하는 基本的倫理중의 하나로서, 부모님 슬하를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과 부모를 항상 意識하면서 行動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先行研究와 같이 ‘侍奉의 孝道’라고 명명하였다.

전체분산비로 볼때 이 要因은 8.7%에 해당하고 있다.

#### 5) 保身·立身行道의 孝道

이 要因의 特性은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起床한다거나 規則的인 식사를 하는 것인데, 이는 自身의 身體를 健康하게 도모하는 것이다. 先行研究에서 自身의 신체를 잘 保全하는 것을 保身의 孝道라고 하였던 바, 위의 내용은 이와 일치하여 ‘保身의 孝道’라 명명하였다.

한편, 공부를 열심히 하며 優秀한 成績으로 獎學金을 받는다거나 좋은 책을 가끼이 하고 學校生活을 充實히 한다는 것은, 몸을 세워서(立身) 自己에게 맡겨진 바 일을 충실히 해 나가는것(行道)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要因을 ‘保身·立身行道의 孝道’라고 명명한다.

#### 6) 自立의 孝道

先行研究에서 考察한 것은 諫言의 孝道로서 부모가 행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거나 不義·不合理한 일이면 忠言으로 諫하여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올바른 方向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要因은 부모님 말씀에 자기의 意見을 제시하거나, 부모·형제·친척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自身의 問題는 자신이 처리하여 스스로 自立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自立의 孝道’라고 命名하였다.

이상과 같이, 孝行에 관한 要因分析 결과 6개의 要因으로 抽出되었고, 그것은 전체 변량의 9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社會人口學的 變因과 孝行과의 關係

假說2의 檢證을 위한 t-test와 F-test 결과는 표 2와 같다.

#### 2) 性別에 따른 孝行과의 差異

대학생의 孝行에 性別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男學生보다 女學生의 경우에 孝行이 더 높았다.

內容別로 볼때 ‘親愛의 孝道’·‘家意識의 孝道’ 그리고 ‘侍奉의 孝道’가 性別에 따라서 有意差를 보였는데, ‘親愛의 孝道’와 ‘侍奉의 孝道’에서는 女學生이 男學生보다 相對적으로 더 높았다. 이것은 女學生이 男學生보다 順從的이고 적극적이며 肯定的인 경향이 라는 金雨鐘(1979)의 見解와 일치한다. 한편, 本 研究에서 ‘家意識의 孝道’의 内容은 女學生보다 男學生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 主成長地域에 따른 差異

대학생의 孝行은 主成長地域에 따라서 ‘侍奉의 孝道’ 内容에서만 統計的 有意差를 보였다. 즉 主成長地域이 서울인 학생들이 서울이외의 지방에서 成長한 학생보다 侍奉하는 孝道가 더 높다. 反面에 전체적인 孝行에 있어서는 서울이외의 지방에서 成長한 학생이 대도시에서 成長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統計的인 有意差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主成長地域이 孝를 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變因이 아니라는 崔在錫(1982)의 研究와 일치하고 있다.

#### 3) 出生順位에 따른 孝行과의 差異

出生順位는 대학생의 全體的인 孝行에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를 보였는데, 長女가 長女以外에 비해 전반적으로 孝行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위와 사이즈

변인(N)	행위		행동적 특성의 영향		행동적 특성의 영향		행동적 특성의 영향		행동적 특성의 영향		행동적 특성의 영향	
	행동적 특성	행동적 특성	행동적 특성	행동적 특성	행동적 특성	행동적 특성	행동적 특성	행동적 특성	행동적 특성	행동적 특성	행동적 특성	행동적 특성
성별	남(255) 여(222)	-0.22 -0.02	-0.11 0.12	0.06 -3.02**	-0.38 -13.36***	0.01 0.00	-0.01 0.11	0.01 0.52	0.01 0.01	-0.43 -0.49	-0.43 -3.74***	-0.43 -0.49
주거지역	서울(282) 부산시(90) 충주도시(48) 대전(57) F.국	-0.06 0.02 0.12 0.14 1.437	0.04 -0.02 -0.02 -0.16 0.942	-0.05 0.03 0.06 0.14 2.047	0.09 -0.18 -0.07 -0.10 3.316*	-0.02 -0.04 0.22 0.15 1.820	-0.02 -0.04 0.22 0.15 0.528	-0.02 -0.03 0.03 0.04 0.528	0.02 0.02 0.15 0.14 0.288	0.02 0.02 0.15 0.14 0.288	0.02 0.02 0.15 0.14 0.288	
생수위	장남(105) 경북(98) 경기(24) 서울(10) 부산(122) 대전(118) F.국	0.04 0.08 0.19 0.33 -0.02 -0.06 0.984	-0.02 0.31 0.03 -0.25 -0.06 -0.16 3.967**	0.06 -0.01 0.10 -0.33 0.04 0.08 1.829	-0.26 0.49 -0.01 -0.33 -0.10 -0.10 13.359***	0.13 0.49 -0.01 -0.01 -0.01 -0.07 1.685	0.03 0.07 -0.01 -0.04 -0.01 -0.07 1.255	0.03 0.07 -0.01 -0.04 -0.01 -0.07 0.70	0.01 0.01 -0.01 -0.01 -0.01 -0.01 0.04	0.82 0.45 0.74 0.18 0.32 0.01 0.70	0.82 0.45 0.74 0.18 0.32 0.01 0.70	
거주지역	인천(109) 부산(270) 제주(98) F.국	0.28 -0.09 -0.06 8.702***	0.14 0.01 -0.12 2.622	0.12 -0.04 -0.03 3.250*	0.07 -0.03 -0.16 2.738	0.12 -0.03 -0.11 4.600*	0.07 -0.03 -0.11 4.600*	0.12 -0.01 -0.11 5.260**	0.02 0.02 0.11 5.260**	0.15 0.04 0.02 0.38	0.15 0.04 0.02 0.38	
종교	기독교(43) 불교(146) 무교(46) 기타(6) 불교(236) F.국	-0.02 0.12 0.21 -0.25 -0.11 2.665*	-0.13 0.23 0.39 0.16 -0.20 9.687***	0.00 0.07 0.25 0.15 -0.09 4.753***	0.00 0.07 0.15 0.24 -0.12 3.676***	0.07 0.17 0.15 0.01 -0.05 3.676***	0.07 0.17 0.15 0.01 -0.05 3.676***	0.04 0.04 0.16 0.01 -0.05 0.364	0.04 0.03 0.01 0.00 -0.05 0.364	0.25 0.68 1.16 0.47 0.07 7.184***	0.25 0.68 1.16 0.47 0.07 7.184***	
학력	초등(56) 중(153) 대학(233) F.국	-0.08 0.03 -0.01 0.162	-0.30 -0.03 0.09 2.742*	0.01 0.16 -0.05 3.573*	-0.13 -0.14 -0.05 0.12 -0.16 5.581***	-0.38 -0.07 -0.05 0.18 -0.09 3.641**	-0.38 -0.07 -0.05 0.00 -0.09 3.641**	-0.04 0.01 -0.03 0.00 -0.01 0.04	0.10 0.01 0.00 0.00 -0.02 0.04	0.69 0.68 1.16 0.47 0.07 0.69	0.69 0.68 1.16 0.47 0.07 0.69	
사회학적 특성	40대(99) 41~50대(224) 51~60대(78) 61~70대(76) F.국	0.04 -0.01 0.00 -0.03 0.121	-0.11 0.00 0.03 0.11 1.044	0.09 -0.04 -0.05 0.16 3.393*	-0.13 -0.07 0.12 0.18 -0.15 3.641**	-0.02 0.02 0.05 0.00 -0.01 3.641**	-0.02 0.02 0.05 0.00 -0.01 3.641**	0.02 0.00 0.00 0.00 -0.05 0.02	0.02 0.01 0.00 0.00 -0.05 0.02	0.08 0.08 0.05 0.07 0.06 0.08	0.08 0.08 0.05 0.07 0.06 0.08	
기타	기타(79) 행정관리(115) 기후(65) 기후(76) 기후(51) 기후(50) 상상(41) 상상(41) F.국	-0.12 0.02 0.01 -0.03 0.05 0.15 -0.02 0.622	0.02 -0.11 0.02 -0.03 -0.14 0.17 -0.03 0.936	-0.15 0.11 -0.02 0.00 0.10 0.22 -0.03 3.313**	-0.01 -0.12 0.02 -0.05 -0.10 -0.14 -0.06 0.900	0.00 -0.01 -0.01 0.03 -0.10 -0.04 0.01 0.211	0.00 -0.02 -0.01 0.03 -0.10 -0.07 0.03 0.948	-0.05 -0.02 -0.01 -0.03 -0.06 -0.07 0.03 0.211	-0.05 -0.02 -0.01 -0.03 -0.06 -0.07 0.03 0.211	0.31 0.12 0.04 0.09 0.04 0.09 0.04 0.211	0.31 0.12 0.04 0.09 0.04 0.09 0.04 0.211	

\*\*\* : P&lt;.001, \*\* : P&lt;.01, \* : P&lt;.05



内容別로 볼때, '親愛의 孝道'의 '侍奉의 孝道'에서 有意的인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長女와 長男에서 責任感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長女는 親愛의 孝道에 높게 나타났고 이 内容에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외딸이었다. 한편, '侍奉의 孝道'에 가장 높게 나타난 變因은 親愛의 孝道와 마찬가지로 長女였지만 長男과 외아들은 侍奉의 孝道에서 낮게 나타나았다. 이는 아들(특히, 長男)이 딸에 비해 扶養意識이 높다고一般的的 견해와는相反된 결과이다. 이것은 본研究에서 侍奉하는 孝道의 内容이 女學生의 實踐에 용이한 것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 4) 專攻에 따른 孝行과의 差異

專攻에 따라 대학생이 孝를 行하는 데 内容別 아무런 有意差가 없었다. 全體 孝行에 있어서는 예체능계 학생이 인문사회계나 자연계의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 또한 統計的인 有意差는 없었다.

#### 5) 祖父母와의 同居經驗에 따른 孝行과의 差異

祖父母와의 同居經驗은 대학생의 전체 孝行에統計的인 有意差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同居를 經驗한 일이 있는 학생이 同居經驗이 전혀 없는 학생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内容別로 볼때, 祖父母와의 同居experience에 따라 대학생의 孝行內容에 아무런 有意差를 보이지 않았다.

#### 6) 家庭教育에 따른 孝行과의 差異

대학생의 孝行에 있어 家庭教育에 따라서統計적으로 有意의 差異를 보인 것은 '恭敬의 孝道', '家意識의 孝道', '保身·立身行道의 孝道' 그리고 '自立의 孝道' 内容으로 나타났다. 즉 家庭education이 엄격할수록 恭敬의 孝道와 家意識의 孝道 그리고 保身·立身行道의 孝道에 높게 나타났으며 自立의 孝道에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家庭education이 엄격할 수록 '親愛의 孝道'의 '侍奉의 孝道' 内容에도 높게 나타났으나統計的인 有意差는 없었다.

家庭教育이 엄격할 수록 素반적으로 孝行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家庭education을 엄격히 받은 학생들이 老人에 대해서 肯定的인 態度를 보였다는 趙明姬(1974)의 研究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 7) 宗教에 따른 孝行과의 差異

宗教는 대학생의 孝行, 즉 부모에게 행하는 全體 孝行에 有意의 差異를 보였는데, 宗教가 기독교나 불교인 경우가 천주교나 기타종교 그리고 無宗教의 경우보다 孝行에 높게 나타났다.

内容別로 보면 '恭敬의 孝道', '親愛의 孝道', '家意識의 孝道' 그리고 '侍奉의 孝道' 内容이 宗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宗教가 불교인 학생은 부모에게 恭敬의 孝, 家意識의 孝 그리고 侍奉의 孝를 行하는 데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 宗教를 가진 학생을 이러한 孝에 낮게 나타났다. 한편, 親愛의 孝道일 경우에는 역시 불교를 宗教로 하는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기독교이다.

以上과 같은 결과는 우리의 傳統的인 思想이나 規範意識이 강하게 반영된 불교의 性格을 잘 나타내준 것이라고 풀이된다.

#### 8) 父의 教育水準에 따른 孝行과의 差異

대학생의 전체 孝行은 父의 教育水準에 따라統計的인 有意差를 보이지 않았으나, 父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孝는 높게 나타났다.

内容別로 볼때, 父의 教育水準은 '親愛의 孝道', '家意識의 孝道' 그리고 '侍奉의 孝道'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父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대학생은 '親愛의 孝道'와 '侍奉의 孝道'에 높게 나타났고, '家意識의 孝道'는 父의 教育水準이 충족일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9) 收入에 따른 孝行과의 差異

대학생의 孝行을 内容別로 볼때, 收入에 따라 '家意識의 孝道'와 '侍奉의 孝道'에 有意差를 보였다. 즉 家族의 收入이 많을수록 '家意識의 孝道'에 대한 實踐은 낮아지지만 '侍奉의 孝道'에서는 점점

표 3. 孝行에 대한 대학생의 實踐度

요인 번호	요인명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그저 그렇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FS 1	恭敬의 孝道					(3,772)
FS 2	親愛의 孝道					(3,391)
FS 3	家意識의 孝道					(3,660)
FS 4	侍奉의 孝道					(3,580)
FS 5	保身·立身行道의 孝道					(3,036)
FS 6	自立의 孝道					(3,869)

높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전체 孝行은 家族의 收入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나 統計的인有意差는 인정되지 않았다.

#### 10) 家長의 職業에 따른 孝行과의 差異

대학생의 孝行을 内容別로 보면, '家意識의 孝道' 内容에서만 家長의 職業에 의해 統計的인 有意差가 인정되었다. 즉, 家長의 職業이 農業·축산업·임업·수산업 및 수련업일때 대학생들의 家意識의 孝道에 대한 實踐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기술직일 경우에 가장 낮은 실천을 보였다. 그러나 대학생의 全體 孝行은 家長의 職業에 따라 統計的인 有意差를 보이지 않았다.

以上의 結果로 볼때, 대학생의 孝行은 社會人口學的 變因에 따라 대부분이 그 有意差가 인정되어 假說2는 肯定되었다.

#### 3. 孝行에 대한 대학생의 實踐度

대학생의 孝行은 6가지 内容으로 抽出되었는데 이에 관한 그들의 實踐度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孝行內容 6

가지 모두가 '그저 그렇다'와 '그렇다' 사이에 分布되었다. 이것은 오늘의 대학생들이 모든 項目에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 孝를 實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1) 實踐度가 높은 孝行內容

實踐度가 가장 높은 孝行內容은 '自立의 孝道'로 그 정도는 '그렇다'쪽에 아주 가까웠다. 自立의 孝道 相互間의 比較에서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처리한다(II-7)와 부모님 말씀에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다(II-46)에서 높은 實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 의견에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때 과연 傳統社會에서와 같이 温和한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의견을 사뢰는 것 같이 事理를 밝히는 지는 의문이다.

두번째로 實踐度가 높은 것은 '恭敬의 孝道' 内容으로 이 역시 '그렇다'쪽으로 치우쳤다. 공경의 孝道 相互間의 比較에서는 웃어른을 대할때 호칭을 포함한 언어사용에 주의한다(II-32)의 問項에 학생들의 孝行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實踐을 높게 하고 있는 問項은 웃어른을 공경한다(II-

30)로 나타났다. 反面에 恭敬의 孝道中 實踐이 가장 낮은 間項은 부모에게 말대답을 하지 않는다(II-34)로서 대학생들은 보통 부모에게 意識的 或은 無意識的으로 말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이 부모에게 孝를 行하는데 세번째로 높은 實踐을 보이고 있는 内容은 ‘家意識의 孝道’로서 그 정도는 ‘그렇다’ 쪽으로 치우쳤다. 家意識의 孝道 相互間의 比較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孝行文항은 부모의 건강에 대해 걱정한다(II-52)였다. 이것은 오늘의 自身이 있게 해 주신 부모에 대한 感謝表示의 하나로 보여진다. 한편, 부모가 연로하여 自立能力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父母扶養에 관한 内容 즉, 부모를 장차 부양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II-48)의 間項에는 ‘그저 그렇다’와 ‘그렇다’ 사이에 分布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일을 해서라도 부모를 부양한다’와 ‘자기 자신의 생활력에 맞춰서 부양한다’에 99.5%의 反應을 나타낸 徐炳淑(1986)의 결과보다는 훨씬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現代社會에서 급속히 檢頭되고 있는 老人扶養의 問題와 老人の 疏外問題등의 원인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2) 實踐度가 낮은 孝行內容

대학생이 부모에게 孝를 行하는데 있어서 그 實踐度가 가장 낮은 内容은 ‘保身·立身行道의 孝道’로 ‘그저 그렇다’에 해당되었다. 保身·立身行道의 孝道 相互間의 比較에서는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다(II-26)의 문항이 높은 實踐을 보였다. 그러나 探索調查結果 부모가 높은 비율로 孝道라고 생각하는 間項인 공부를 열심히 한다(II-1)에서는 ‘그렇지 않다’와 ‘그저 그렇다’ 사이에 分布하였다. 이것은 오늘의 대학생들이 孝行이란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行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의 實踐이라는 것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實踐度가 낮은 孝行內容은 ‘親愛의 孝道’로 ‘그저 그렇다’ 쪽으로 치우쳤다. 親愛의 孝道 相互間의 比較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부모와 상의한다(II-17)의 間項이 가장 높게 實踐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이성친구는 가정에 소개한다(II-24)의 間項에서 가장 낮은 실천을 보였다. 한편 親愛의 孝道에 포함되는 間項중 부모와 대화 시간을 자주 갖는다(II-64)는 ‘그저 그렇다’와 ‘그렇다’ 사이에 分布되어 嚴功變(1985)의 결과(23.6%)와 비교하여 볼때 높게 나타났다.

以上과 같이 부모들이 孝道라고 생각하는 문항에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에 접근하고 있는지 内容別로 알아 보았다. 대학생들은 오늘날의 과도기 상태의 가족倫理 상태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自身이 行할 수 있는 孝를 實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要約 및 結論

本研究의 目的是 현실성에 적합한 内容에 의하여 대학생의 孝行에 관한 實態를 파악하고, 社會人口學의 變因과 孝行과의 關係를 紛明함으로써 대학생을 健全한 考觀定立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示하는데 있으며 그 결과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孝行에 관련된 内容을 要因分析한 결과 6개의 要因이 抽出되었다. 全體分散比로 볼 때 웃어른을 恭敬하고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恭敬의 孝道’要因이 가장 큰 比率(54.7%)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부모와 相議하고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여 家庭의 화목을 위해 努力하는 ‘親愛의 孝道’(11.7%)이고, 父母의 健康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가훈에 벗어나지 않는 行動을 하려고 한다는 ‘家意識의 孝道’(9.3%), 가능한 일찍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지 않아 부모의 슬하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侍奉의 孝道’(8.7%) 자신의 문제는 父母나 親知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려는 ‘自立의 孝道’가 가장 적은 比率(5.1%)을 나타내고 있다.

2) 대학생의 孝行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人口學의 變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恭敬의 孝道’ 内容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은 家庭教育 및 宗教로 나타났는데, 家庭教育을 嚴格히

받은 學生일수록 그리고 宗教가 불교인 學生의 實踐이 높게 나타났다.

(2) ‘親愛의 孝道’ 内容은 性別, 出生順位, 宗教 그리고 父이 教育水準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男學生 보다는 女學生이 相對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女學生 중에서도 長女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를 宗教로 가진 학생들이 그리고 父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孝는 높게 나타났다.

(3) ‘家意識의 孝道’ 内容에서는 性別, 家庭教育, 宗教, 父의 教育水準, 家族의 收入 및 家長의 職業에 따라 有意差가 인정되었다. 즉, 女學生보다는 男學生이, 불교를 종교로 하는 학생이, 父의 教育水準이 중졸일때 그리고 家長의 職業이 농업·축산업등에 속할때 높게 나타났으며, 家庭教育이 嚴格할수록 그리고 家族의 收入이 적을수록 대학생의 家意識은 높게 나타났다.

(4) ‘侍奉의 孝道’ 内容은 性別, 主成長地域, 出生順位, 宗教, 父의 教育水準 그리고 家族의 收入에 따라서 有意한 差異가 인정되었다. 즉, 女學生이 男學生보다 相對적으로 더 높았고 서울에서 成長한 학생이 지방에서 成長한 학생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으며 長女가 그리고 기독교를 宗教로 가진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父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그리고 家族의 收入이 많을수록 侍奉의 孝는 높게 나타났다.

(5) ‘保身·立身行道의 孝道’ 内容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은 家族教育으로서, 嚴格할수록 실천이 높게 나타났다.

(6) ‘自立의 孝道’ 内容에서는 家庭教育에 따른 有意差가 인정되었는데, 家庭education이 자유로울수록 孝의 實踐이 높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볼때, 性別, 出生順位, 家庭education 그리고 宗教에 따라 대학생의 孝行은 有意差를 보였으며, 主成長地域, 父의 教育水準, 家族의 收入 및 家長의 職業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有意差가 인정되었으나, 專攻과 祖父母와의 同居經驗에 따라서는 有意差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社會人口學的 變因의 特性에 따라서 대학생의 孝行에는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孝行, 即 부모에 대한 孝道는 높게 나타났다. 부모들이 孝道라고 생각하는 内容에 학생들은 어느정도 實踐하고 있는지 内容別로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恭敬의 孝道는 ‘그렇다’와 ‘그저 그렇다’ 사이에 分布되어 있으나 ‘그렇다’는 쪽으로 치우쳤고 親愛의 孝道인 경우에는 ‘그저 그렇다’ 쪽으로 치우쳤으며, 家意識의 孝道인 경우에는 ‘그렇다’와 ‘그저 그렇다’ 사이에 分布되었으며, 侍奉의 孝道인 경우 역시 ‘그렇다’ 쪽에 가깝게 치우쳤다.

부모들이 바라는 孝道에 가장 높게 實踐되고 있는 要因은 自立의 孝道이고 가장 낮은 실천을 보이고 있는 要因은 保身·立身行道의 孝道로 나타났다.

以上과 같은 研究結果를 바탕으로 結論 및 提言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孝行 内容은 ‘恭敬의 孝道’, ‘親愛의 孝道’, ‘家意識의 孝道’, ‘侍奉의 孝道’, ‘保身·立身行道의 孝道’ 그리고 ‘自立의 孝道’로 分類되었는데 이러한 内容중에서 전체분산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恭敬의 孝道’이다. 이는 부모를 尊敬하는 일이 부모를 섬기는 일 중에는 가장 중요한 道德의 義務이므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둘째, 대학생의 孝行은 社會人口學的 變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세째, 대학생의 孝行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모든 内容에서 ‘그저 그렇다’와 ‘그렇다’ 사이에 分布되어 학생들은 모든 項目에 있어서 부모에게 孝를 行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傳統的 家庭倫理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때 이 또한 바람직한 現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 쪽에 치우친 ‘保身·立身行道의 孝道’와 ‘親愛의 孝道’로 인하여 老人問題, 老父母 경시현상 그리고 青少年問題등이 發生된다고 할 때, 이는 주목할 만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以上의 結論을 놓해 앞으로의 研究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本 研究는 調查對象을 대학생으로 限定하  
였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의 孝行만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孝의 本質은 父慈子孝로써  
부모-자녀 關係를 말한다. 그러므로 調查對象을  
대학생과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로 확대하여서  
부모가 子女의 孝行이 어느정도 實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서로의 結果를 比較해 봄  
으로써 불일치되는 점을 파악하고 問題點을 抽出  
하여, 이를 지양하기 위한 方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本 研究에서 作成한 孝行 척도는 현실정에  
적합한 内容으로 구성되어 대학생의 孝行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도로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孝行에 관한 理論的 체계  
화를 위해 보다 體系的이고 심충적인 측정도구의  
개발과 그에 따른 研究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REFERENCES

- 1) 金美惠：韓國 家族에서의 孝의 意味.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8
- 2) 金承國：意識構造面에서 본 孝教育의 方向.  
「忠孝思想」 서울：檀國大出版部, 1977
- 3) 金雨鐘：中學生의 孝觀念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9
- 4) 金裕赫：孝의 本質. 「忠孝思想」 서울：檀國大  
出版部, 1977
- 5) 金益休：韓國의 孝思想. 서울：瑞文堂, 1979
- 6) 金鐘潤：學生과 學父母의 孝行 概念에 對한  
比較.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9
- 7) 徐炳淑：父母老後의 責任意識에 관한 研究.  
韓國老年學會 6 : 101-120, 1986
- 8) 尹聖範：孝. 서울：서울文化社, 1982
- 9) 安商元：忠孝思想과 國民教育論. 論文集(제 2  
輯), 建國大學校 教育研究所, 1977
- 10) 吳澤燮：社會科學 データ 分析法. 서울：圖書  
出版 나남, 1987
- 11) 유영숙：자녀와의 동·별거에 따른 노인문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2) 李光奎：韓國家族의 構造分析. 서울：一志社,  
1982
- 13) 李民樹(譯)：孝經(外). 서울：乙酉文化社, 19  
85  
(譯)：擊蒙要訣. 서울：乙酉文化社, 1987  
(譯)：父母恩重經. 서울：乙酉文化社, 1986
- 14) 李升遠：孝倫理의 基本方向에 關한 一研究.  
建國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 15) 李乙浩：孝의 倫理와 家庭教育. 「忠孝思想」  
檀國大學校 出版部, 1977
- 16) 張德順：忠孝思想이 現代에 棲息할 수 있을까.  
「忠孝思想」 檀國對出版部, 1977
- 17) 趙明姬：老人에 대한 高麗學校學生의 態度分  
析.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  
74
- 18) 車柱環(譯)：論語. 서울：乙酉文化社, 1986
- 19) 崔在錫：韓國家族研究. 서울：一志社, 1985

